

## 패션 사진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에 관한 연구

김 소 영<sup>+</sup> · 이 병 화<sup>\*</sup>

서일대학 의상과 부교수<sup>+</sup> · BHL 평생교육원 원장<sup>\*</sup>

### A Study on Destructive Trends Presented on Fashion Photographs

So-Young Kim<sup>+</sup> · Byoung-Hwa Lee<sup>\*</sup>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Seoil College<sup>+</sup>

Director, BHL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e<sup>\*</sup>

(2006. 10. 2 접수; 10. 30 채택)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econstruction theory that is changing and developing by being converted into visual from as cultural code which reflects the spirit of the times and art style as well a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deconstruction expressed in the Fashion photographs.

Fashion photographs are historical documents presenting us with the evidence of the ideal body types and culture throughout time. Fashion photographs is direct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itself, and at the same time, it transmits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times.

Fashion photographs has opened a new aspect called visual communication, when it's seen in new, more profound way, instead of being locked in its visible frame. Photograph is no longer a mere means to preserve documentation or pursue artistic expression. Instead, it's now regarded as a way to pursue visual transmission owing to its cognitive psychology, and this is a remarkable step toward new thing.

In this study, the possible visual information function of photograph was explored from diverse aspects, such as the combination of photo and design, its linking to printing technology's mass production function, or the development of its imagery symbolism.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ure of deconstruction can be explained as deconstruction of the sexes, deconstruction of the time and space, and deconstruction of the genre.

**Key Words:** Fashion Photograph (패션 사진), Deconstruction (해체주의), Deconstruction of the Sexes(성의 해체), Deconstruction of the Time and Space(시간과 공간의 해체), Deconstruction of the Genre(장르의 해체)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Kim

Tel. +82-2-490-7505, Fax. +82-2-490-7502

E-mail : fdtksy@seoil.ac.kr

\* 본 논문은 2005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론

카메라에 의해 기록되는 패션 사진은 기록되고 재생되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통해 경험을 복사해 놓을 뿐 아니라 재현을 통해 그 시대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전달해 준다. 패션 사진은 우리에게 당대 이상형과 관습의 증거를 제시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패션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패션 사진은 기록의 민첩성, 묘사의 정밀성, 구체성, 직접성, 신빙성 등 사진 고유의 특성 때문에 목적이 뚜렷한 매체이며, 시각 우선적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다.

현대의 패션 사진은 순간적인 주목을 끄는 효과보다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형태심리학에서 말하는 ‘완결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장의 단사진의 형태보다는 효과적이고 뛰어난 편집으로 몇장의 사진을 연결시켜 패션 이미지를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특히 패션 사진은 디자이너의 의식과 그 세대를 읽어 내는 안목, 그리고 소비자의 의식을 한발 앞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유행을 창출해 내는 속성을 지닌다. 즉 패션 사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여러 계층을 연결하여 질서를 형성해 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패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사진이 이용된 것은 사진의 가장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성격과 복제 능력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분위기 속에서 패션 사진은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공존하는 방식들의 해체적 경향을 볼 수 있다. 해체주의적 분위기의 패션 사진을 분석해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유행을 창출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패션에 나타난 상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사진을 통해 나타난 패션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패션의 해체적 경향을 밝혀낼 수 있다.

해체주의와 복식을 연관시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 경향을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 전략인 차연,

상호 텍스트성, 탈중심, 불확정성의 4가지로 패션 경향으로 분류하여 미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주영, 1995; 경은주, 1995; 조말희, 1996; 조선희, 2003), 건축과 패션을 연관시켜 해체주의를 분석한 연구(김지연, 1996; 김혜정, 1998), 해체주의적 특성을 복식 디자인에 활용한 연구(김주현 외, 1999; 손영미 외, 2004), 벨기에의 해체적 경향의 디자이너를 분석한 연구(정진영, 2002; 조쌍미, 2002), 다문화적 개념으로서 패션과 타 영역간의 상호 텍스트성에 관한 연구(김혜정, 2004; 서경희 외, 2005)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대부분 해체주의 패션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문화 코드 가운데 패션 사진을 통해 해체적 경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문화의 다양한 코드 가운데 패션 사진을 중심으로 패션 사진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패션 사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대의 패션 사진은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포스트모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트모던 문화 중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해체주의 철학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사진의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 기능은 일찍부터 패션을 표현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여러 작가들의 패션 사진을 통해 패션 사진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대표적인 패션 사진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 사진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을 패션 사진의 실증적 자료 제시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으며, 미래의 패션 사진 및 패션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

해체주의는 프랑스 작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문학기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체주의에서의 해체란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기호와 언어 텍스트, 컨텍스트, 작가, 독자, 역사의 역할, 해석의 임무, 비평 형식 등에 대한 기존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해체주의는 구조를 외부로부터 붕괴하는 것이 아니다. 해체의 시도는 반드시 내부로부터 작용하며, 구조로부터 요소나 원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로 밀려오는 것이다.<sup>1)</sup>

데리다는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은 진리의 현존을 믿어왔던 서양철학 사상의 전통을 그 근원부터 해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을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됨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의 해체주의 이론은 의미 체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인 것이다.<sup>2)</sup>

해체주의의 작품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대중적 공식에 맞추려는 모든 디자인에 대한 도전이다. 해체주의의 혼란스러운 방식은 일단 대중에게 인식되고, 비평의 주체가 되고 나면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어 더 많은 관심과 더 넓은 수용을 부추긴다. 해체주의의 형태는 기존 모더니즘의 통합성이나 규범을 이탈하고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형태를 추구하는데 그 결과 파괴적이고 미완성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sup>3)</sup>

해체주의를 친구양식<sup>4)</sup>의 갈등과 이들 양식에 부여된 관심사항의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sup>5)</sup> 해체전략을 단순히 하나의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술가와 사상가들의 의도로 파악하여 이들의 공통된 인식소로서 해체주의를 재해석하여야 한다.

해체주의의 모더니즘 비판은 형태(form)와 형

상(figure), 양식(style)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현상과 관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더니즘의 독단적, 이성적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의성과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논리의 부정,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화와 장르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해체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 1. 전통적인 이분법적 논리의 부정

데리다의 해체는 전통적인 이원론, 이성 중심주의 그리고 지시론적 의미론 등의 해체이며, 그 사상의 핵심은 서구의 이분법적 대립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기이다. 이분법적 논리의 사고는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의 사유방식의 전형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게 했다. 예를들어 선/악, 정신/물질, 주관/객관, 의미/무의미 등의 대립을 띠며 설정되었고, 이 경계 속에서 대립의 개념들은 도덕적 기준의 잣대로 우월한 것과 하등한 것으로 위계화된다.

해체주의는 고전적 구조주의가 즐겨 사용하던 이원적 대립관계들이 이데올로기에 특유한 사유방식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sup>6)</sup>

데리다는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의 원인을 인간의 중심에 대한 갈망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있으며, 중심은 ‘본질, 존재, 주체, 초월성, 신’ 등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서구의 형이상학을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로 부른다. 이를 통해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사유의 전형인 전통적인 이분법적 논리에 부정을 드러내고 있다.

### 2.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며, 상호 언급, 병행 인용,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다.<sup>7)</sup> 여기서 텍스트란 결코 하나

의 의미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망을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즉 모든 개개의 기호, 구문, 대목 등이 하나의 의미를 향한 운동 속에서 서로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상호 충돌되어 불안한 텍스트를 형성하며 그 결과 다의적인 망과 충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텍스트 구조의 범주나 전통적인 비평적 접근의 범주들 안에 손쉽게 포괄될 수 없는 의미의 부단한 명멸, 누출, 확산이 있는데, 데리다는 이를 ‘흩어지는 것’(dissemination)이라고 부른다.

데리다가 주장하는 ‘병행 인용’이란 두개의 극단적인 텍스트의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그 두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고, 양쪽 모두를 참조함으로써 이분법을 해체하고 중간적 영역에 입지하여 의미 유희를 유도하고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으로서, 해체주의의 중심 개념을 이룬다.<sup>8)</sup>

해체주의에서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하는 상호텍스트성은 글 또는 책이나 서류에서 본문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된 텍스트(text)란 단어는 주로 언어학자, 문학 비평가, 기호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대상인 주로 문자 언어로 쓰여진 글을 부르는데 사용해 왔다.

상호텍스트성은 해석자가 하나의 작품을 독립된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작품 또는 대중문화의 다른 부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텍스트로서, ‘인용’ ‘창조적 표절’과 함께 주체가 없는 탈중심의 해체 원리를 나타내고, 해체의 열린 사고에서 나오는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차연의 유희로서의 다해석 가능성과 통하는 것이다.

### 3. 탈중심화와 장르의 해체

무엇을 해체하는가의 핵심이 중심이라면 해체의 방법은 그에 대한 탈중심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중심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해체는 중심의 없음에 대한 작용내지는 움직임으로서 의미가 흩어지는 것(dissemination)에 대

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탈중심화란 현전을 부재화시켜 현전의 없음을 무한히 작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중심화는 무(無)화시키거나 파괴(destruction)가 아니라 구조를 탈피하는 탈구조(deconstruction)임을 이해시켜 준다. 이러한 탈구조는 “의미”는 유보되어있을 뿐이며 결코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데리다의 주장과도 일치하게 된다.

장르의 해체는 디자인 원리를 해체시키거나, 수직과 수평을 거부하거나, 어두운 조명에 풍부하고 깊이 있는 색감의 영상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분만을 유희적으로 사용하여 만화와 같은 느낌을 주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물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어떤 사물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한다던가, 상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주얼만을 부각시켜 내세우고 정작 상품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던가,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비주얼을 그래픽을 통해 합성하여 내세우는 이미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III. 패션사진의 개념과 분류

### 1. 패션 사진의 개념 및 흐름

오늘날은 정보매체의 발달로 패션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발달이 패션 변화의 주기를 단축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패션은 더욱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패션사진은 모드사진(Mode Photography)이라고도 하며 유행하는 의상이나 장식품 등을 광고의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사진을 말한다. 패션 사진은 주로 모델을 이용하여 의상을 소개하는 사진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상뿐만 아니라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을 소개하기 위해 모델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도 일종의 패션사진으로 간주한다.<sup>9)</sup> 이러한 패션사진은 상품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모델을 통하여 상품을 강조해준다. 패션사진은 모델의 표정이나 동작

〈표1〉 패션 사진의 역사적 흐름

년대	패션사진의 경향	대표적 작가
1910년~ 192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주의 사진에 반기를 든 스트레이트한 패션사진.</li> <li>▶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패션 사진 추구.</li> <li>▶ 상류사회의 예법이나 생활양식을 보여줌.</li> <li>▶ Vogue, Venity Fair 등 전문지에 패션 사진 실림.</li> </ul>	스티글리츠 아돌프 드 메이어 스타이켄
19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좀 더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감각 추구.</li> <li>▶ 초현실주의의 경향의 패션사진.</li> <li>▶ 소형 카메라와 조명 기술의 발달.</li> <li>▶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동적인 패션 사진.</li> </ul>	호이넨젠 위에네 만 레이 어윈 블루멘펠드 안드레 더스트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조명 효과로 극적인 분위기와 피사체를 강조.</li> <li>▶ 소규모 스튜디오에서 웅장한 스튜디오로 규모가 확대됨.</li> <li>▶ 제2차 세계대전 중식 후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경쾌하고 깨끗한 하이키 느낌과 자연스러운 패션 이미지 창조.</li> </ul>	호스트 P. 호스트 세실 비튼 어빙 펜 루이스 달-울프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패션 사진으로 전개·발전된 시기.</li> <li>▶ 여성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욕구를 주제로 표현.</li> <li>▶ 아트디렉터, 모델, 패션 사진가가 협력하여 패션과 컨셉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li> <li>▶ 이전과 구분되는 패션 사진의 경향.</li> <li>▶ 야외 촬영, 이미지 구성에 활기를 띤 시대.</li> </ul>	토니 프리셀 루이스 달-울프 어빙 펜 리처드 아베돈 노만 파킨슨 암스트롱-존스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감한 앵글, 실험적 조명, 대형 플래쉬 사용 및 스냅샷과 같은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패션 이미지 제시.</li> <li>▶ 배경을 단순화시킨 사진에 움직임 도입.</li> <li>▶ 여성의 자유로움과 사회적 진출을 표현.</li> <li>▶ 성적 암시와 관능적 이미지의 패션 사진 시도. ⇒ 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li> </ul>	리처드 아베돈 데이비드 해밀톤 밥 리차드슨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의 시대로 형광물질에서 발산되는 화려한 색채와 금속성의 강력한 사진들이 특징.</li> <li>▶ 에로티시즘 이미지 도입.</li> <li>▶ 금기시 되었던 여성의 성욕을 솔직하게 묘사. ⇒ 동성애, 관음증, 복장 도촬 등.</li> <li>▶ 솔직하고 낙관적인 이미지를 담은 라이프 스타일 경향의 사진이 부각됨.</li> </ul>	사라 문 히로 헬무트 뉴턴 기 보던 테보라 테베릴 사가 반 도슨 아써 엘고트 울리 로즈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li> <li>▶ 건강미와 퇴폐적 아름다움이 공존.</li> <li>▶ 60년대 말의 성개방, 동성애, 페미니즘과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 패션 사진에 영향을 줌.</li> <li>▶ 과격한 성적 표현. ⇒ 바이섹슈얼한 모델이나 동성연애자 등 억압된 성에 대한 충동과 욕구의 패션 사진.</li> <li>▶ 남성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패션 사진 등장.</li> <li>▶ 남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에로티시즘 패션 사진 등장.</li> </ul>	브루스 웨버 로버트 메이플도프 허브 리즈 패트릭 디마첼리어 엘렌 폰 인워쓰 아써 엘고트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큐멘터리적 요소가 가미된 사실주의적 패션 사진.</li> <li>▶ 패션 사진에 순수예술 도입 ⇒ 예술적 이미지 표현.</li> <li>▶ 90년대에 독특한 분위기와 개성을 중시한 틴에이지 모델의 등장은 패션 사진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킴.</li> <li>▶ 시퀀스, 시리즈, 에세이 형식의 에디토리얼 표현 방식 등장.</li> </ul>	디오라지오 파올로 로버시 닉 나이트 피터 린더버그 스티븐 마이젤 쉴라 메츠너

은 물론 의상이나 장식품의 질감, 디자인이나 분위기, 기능 등을 표현요소로 삼고 있다.<sup>10)</sup>

패션 사진은 패션의 형태나 재료, 의상을 어떻게 착용하는가, 특정 순간을 연출하여 어떻게 의상을 표현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로 인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패션 자료가 기록되어 후세대에 자료로 남겨진다. 패션사진은 단지 의상을 소개하는 차원 이상이며 매력적인 여성모델로 하여금 미, 매력, 사랑, 희망, 섹스, 환상 등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도록 한다.<sup>11)</sup>

패션사진은 사진의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기능의 일차원적 의미에서 벗어나 감성적, 상징적 이미지를 상품에 부합시켜 소비자의 욕구나 희망, 이성적 특징을 이미지화시킨다. 사진의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것, 즉 조작될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그러므로 패션사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뉴홀(Newhall)의 저서 『사진의 역사』에 의하면, 1913년 보그지에 드메이어(Demayer) 남작이 촬영한 패션 사진이 게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패션 사진의 역사는 길지 않다.<sup>13)</sup> 초기 패션 사진은 고감도 필름과 조명, 전자기술을 활용한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이라 상류사회의 귀부인이나 여인들을 모델로 하여 상류사회를 암시하는데 이용되었다. 초기에는 인간성을 무시하고 조각으로 보이는 듯한 완벽한 몸매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반에게 인간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을 표현하고 의상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션사진은 점차 상류사회를 단순하게 암시하는 것보다는, 직업 모델을 내세워 추상적인 “여자”로서의 신화적 성격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진으로 바뀌어갔다.

90년대 들어 사회적 변화 요인은 철저하게 패션 사진에 반영되었고, 이런 상황과 맞물려 패션 사진에 다양한 장르가 등장하였다.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 본능인 섹슈얼리티의 표현과 성적 욕구, 죽음, 스캔들이라는 80년대의 파괴적인 사진의 경향과 함께 현실도 파괴적인 복고와 세기말적 위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또 안정적이고 형식적이며, 수직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주는 모더니즘적인 영상과 입체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초현실주의 성격을 띤 아방가르드적 요소가 섞여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사진이 공존하고 있다. 패션사진의 시대적 흐름과 대표적인 작가를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패션 사진의 대표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섹슈얼리티, 다큐멘터리적 사실주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2. 패션사진의 분류

### 1) 섹슈얼리티적 패션 사진



<그림1> Brian Duffy, Amanda Lear의 모습, Nova, 1971, 5.

패션 사진에 있어서 섹슈얼리티의 강조는 패션 세계와 그 주역들의 요구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자칭 ‘테러블 쓰리(Terrible Three)’라 하는 데이비드 베일리(David Bailey), 테런스 도노반(Terence Donovan)과 브라이언 듀피(Brian Duffy)에 의해서였다. 그들의 작품들은 여성 독립의 테마를 전개하면서 아름다움, 섹슈얼리티와 성공에 가치를 두었다. 브라이언 듀피는 그들 셋이 섹슈얼 부치 보이(butch boys)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우리 세 명은 의복 안에서는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sup>14)</sup> 이는 의복 착용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림1>은 듀피의 사진으로 아마다 리어(Amanda Lear)의 모습을 섹슈얼리티와 독립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한 작품이다.

1970년대 이러한 테마들은 헬무트 뉴턴(Helmut Newton)과 기 보딘(Guy Bourdin)에 의해 제작되었는데<sup>15)</sup> 그 이미지들은 여성에 대한 환상, 신화, 섹슈얼리티의 이슈들을 폭넓은 문화적 논의로 표현할 것이다. 기 보딘은 자신의 사진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달라진 지위에 대한 개념을 타락하고, 상처받기 쉽고, 포악한 것으로 묘사했다. 헬무트 뉴턴은 미래지향적인 에로티시즘의 화신이라 표현될 만큼 새롭고 독특한 시각과 양



<그림2> Versace의 'silver starburst of a dress', 1999.



<그림3> Kristin McMenary, 1996, Photo Miles Aldridge.

식의 패션 사진을 보여주었다. 미모의 모델이 헬뮤트 뉴턴의 카메라 앵글을 통과하면 오브제의 추상성이 구체적인 시각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항상 유럽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섹슈얼리티가 함축되어 있다. 또 리처드 아베돈은 1979년부터 베르사체의 패션 사진들을 촬영했는데, 남녀의 자연스러운 묘사, 의상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연출, 모델의 포즈나 카메라의 위치 혹은 사진 기법 등을 이용하여 섹슈얼리티를 표현해 내었다. <그림2> <그림3>은 마일스 알드리지(Miles Aldridge)가 찍은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패션사진이다.

2) 다큐멘터리적 사실주의 패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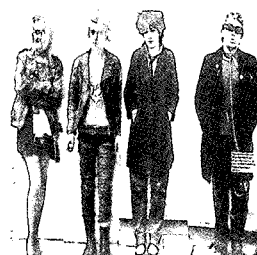
리차드슨(Richardson)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사실주의로 패션 이미지를 확장해 나갔는데, 좀 더 날카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들에서 마약 문화에 대한 테마를 탐구했다. 70년대는 양극단의 시대이자 격변의 시대였다. 여성들과 극단적인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 속의 모델 이미지는 싹싹한 숙녀들, 숙명적인 히피족의 아가씨들, 디스코텍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로 표현되었고, 이것이 시대를 반영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보여졌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건강미를 지닌 모델이 패션 사진에 등장하였고, 솔직하고 사실적인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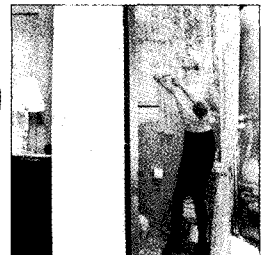
업은 1980년 테리 존스(Terry Jones)가 창간한 매거진 『i.D.』의 근간이 되었다. “스트레이트 업(straight up)”이라는 제목의 『i.D.』의 패션 기사는 전문 모델을 기용하기 보다 오히려 거리에서 채택한 사람들을 특종으로 다룬 사진들을 통해 패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림4> 『i.D.』와 경쟁 잡지인 『The Face』가 1980년대 초 가시적 유행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스타일은 패션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두 잡지의 패션 평론에서 지속되어온 이러한 믿음은 이후 2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사진가들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에 이러한 스타일 확산 동기는 다큐멘터리나 통속적인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이 전적으로 현대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6</sup> 패션 세계에 의해 지나치게 상업적 이미지로 여겨지는 특성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합법적인 예술 양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90년대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인간의 상태와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sup>17</sup>인 다큐멘터리 사진의 관심사는 패션 사진을 그 자체의 역할에 도전하는 기회로 제시하며 이것은 사실주의로 잘 드러난다. <그림5> 데이비드 심스(David Sims)가 촬영한 1993년 질 샌더(Jil Sander) 광고 사진에서 슈퍼 모델 린다 에반젤리스타(Linda Evangelista)는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처럼 행동하고 ‘사실적인’ 행위를 기록하는 사실주의 경향은 90년대를 지배하고 있다.

코린느 데이(Corinne Day), 데이비드 심스(David Sims), 유겐 텔러(Juergen Teller), 니겔 샤프란(Nigel Shafran) 등은 각각 구별되는 개성적



<그림4> i-D, 1987. 12.



<그림5> The Face, 1996, Photo Terry Richardson.



<그림6> Corinne Day, British Vogue, 1993.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모두 사실주의 개념에 기초한 공통적인 미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의 스타일은 포스트 대처리즘(post-Thatcherism)과 세계 불경기라는 불안한 정치적 분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패션은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디자이너들은 잡지에서 ‘그런지(grunge)’라 칭한 스트리트 스타일을 값비싼 의상으로 제시하였다.

코린느 데이는 1990년 『The face』에 당시 슈퍼모델이 아니었던 케이트 모스(Kate Moss)를 모델로 일련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 시리즈에서 그녀의 사실주의적 스타일은 주변문화에 의해 탐구되면서 낙관주의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징후는 1960년대 밥 리차드슨(Bob Richardson)의 스타일을 반영하는, 1993년 ‘언더 익스포저(Under Exposure)’라는 제목으로 보그지에 실린 일련의 사진 시리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진 6> 추움은 빈곤함을 상징하는 이불을 둘러쓰고 라디에이터에 앉아 있는 케이트 모스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그녀의 야윈 신체와 빈곤한 주변 환경들로 표현되었다. 텔레비전과 전화가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도시 소외로 나타난다. 데이는 패션이 불가능한 이상형들을 만들어내기 이전부터 수용되어온 관행들을 깨뜨려 다큐멘터리 요소가 패션 사진에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랑 바르뜨(Roland Barthes)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그것은 사적영역의 공적영역으로의 또는 오히려 개인의 대중화로 새로운 사회가치 창조로의 폭발이라고 주장했다.<sup>18)</sup> 확실히 사실주의 패션 사진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1990년대에 허상이 실재화되어 보여지는 패션 사진의 증가로 인해 상실되어온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잠재의식의 시도로 보여진다.

### 3) 포스트모더니즘적 패션 사진

사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미술의 틀 안에

서 해체작업을 하는 작가들, 마타 로슬러(Math Rosler),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셔리 레빈(Sherrie Levin), 신디 셔먼(Cindy Sherman)<sup>19)</sup>에서 보여진다. 이들이 취하는 기본적 성격이 문자기호와 사진을 혼합, 활용하여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진실성 여부를 비판하고 논리성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림7> Craig McDean for Martine Sitbon, 1997-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사진은 고독, 사랑, 자유, 섹스, 우아함, 절제, 자연, 쾌락, 갈등, 환희, 파괴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7>은 마틴 시본(Martine Sitbon)의 의상을 크레이그 맥딘(Craig McDean)이 촬영한 패션사진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진이다.



<그림8> i-D, Hussein Chalayan, 1998.10.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단순히 벗은 여체를 표현하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낯선 상황을 패션 사진의 표현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림8> 결국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다양성이란 하나의 맥락에서 세분화 되면서 기존의 관습을 타파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다면 여성의 개성을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남성들이 여전히 사회적·경제적 기득권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9> Juergen Teller, Kristen McMenamy, 1996.

처음 독어로 출판된 대형 광고 포스터 『Süddeutche Zeitung Magazin』의 ‘도덕성과 패션

(Morals and Fashion)’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에는 크리스틴 맥메나미(Kristen McMenamy)라는 모델이 나체로 등장했는데, 그녀는 가슴과 엉덩이 부



분에 하트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립스틱으로 ‘베르사체(Versace)’라고 쓰여있다. <사진8> 이 시리즈의 일부는 인위적인 패션 사진의 포즈들을 반복하고, 다른 장면에서는 패션쇼를 준비하는 모델처럼 황량하게 방안을 거닐고 있다. 일반적인 스냅샷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유겐 텔러(Juergen Teller)는 그의 의상이 글래머와 성(sex)을 함축하고 있는 ‘Versace’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패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맥메나미(McMenamy)의 피부는 상처나고 멍들었으며, 여성이 패션 산업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IV. 현대 패션사진의 해체적 경향

해체주의는 불확정성을 지녔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전통적인 이분법적 논리의 부정,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화와 장르의 해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성을 성의 해체, 시간·공간의 해체, 장르의 해체,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 1. 성의 해체

이미지를 제작하고, 화보로 만들어져 안방까지 배달되는 패션 사진은 기존의 예술 방식과는 다르다. 오늘날의 예술은 사회적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 속에 반영된다. 이제 예술작품은 한 개인의 표현주의적 충동에 의해 발화된 순수한 형태로서만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패션 사진을 새로운 예술로 떠오르게 한다.

넌 골드인(Nan Goldin)의 마슈다(Matsuda)와 헬무트 랭(Helmut Lang)을 위한 패션 작품들에서 그녀는 패션 영역에 있어 선입견적인 이상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마슈다(Matsuda)를 위한 패션사진에서, 두 명의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침대 위에 겨 앉은 채 누워있는 장면이 보여진다. 한 여성은 피부를 노출시키는 투

명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한편, 둘 다 땀에 흠뻑 젖어 있다. 이 사진은 ‘Sharon and Kathleen’s embracing; Bowery NYC 1996’이라는 제목이며, 뉴욕의 바워리(Bowery)가는 사회적 파면과 동의어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매춘부, 레즈비언 파트너로 여겨지며, 흘뜨리진 걸모습과 장면은 약물 중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림10>은 디오르 꾸뛰르를 위해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디자인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호한 두명의 여성을 찍은 토니 리차드슨(Toni Richardson)의 패션 사진이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두명의 여성은 서로를 위로하는 레즈비언 파트너라고 여겨진다.

패션사진에서 파편화된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가 파편화되어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의미도 없는 듯한 기호가 무질서하게 사용되어 하나의 의미 공간을 구성하는데 생산자 자체도 막연하게 기호의 의미를 감지할 뿐 각각의 기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정도이다. 서술구조의 모호성은 소비자에게



<그림10> 디오르 오트꾸뛰르를 위한 존 갈리아노 디자인, 1997, Toni Richardson 사진



<그림11> Richard Avedon for Versace, 'Men Without Ties', 1995.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상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림으로서 소비자를 텍스트의 해석공간으로 끌어들인다. <그림11>은 베르사체의 디자인을 입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이미지를 파편화시켜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리차드 아베돈(Richard Avedon)이 촬영한 패션사진이다. 전통적인 남성미와 패셔너블한 여성미의 의상을 접목시켜 이미지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2> Ines van Lamsweerde and Vinoodh Matadin for Calvin Klein, 1996.

<사진12>는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 의상을 착용한 남성의 앤드로지너스적인 성의 해체를 표현한 패션사진이다. 이것은 패션 사진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성역할과 라이프 스타일을 해체시켜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킨 작품이다. 패션 사진이 사회적 관습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와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패션 사진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 2. 시간·공간의 해체

패션 사진에서의 공간의 해체는 모델과 상품이 서로 상이한 공간에서 비합리적 이동을 보여주다가 모델과 상품이 일상적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공간이동의 방식은 상품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13> Ines van Lamsweerde and Vinoodh Matadin for Yohji Yamamoto, 1998.

해체주의 패션 사진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스토리 사이의 시간과 공간이 해체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시간의 질서를 찾을 수 없어서 시간의 해체됨을 엿볼 수 있다. <그림13>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의상을 착용한 여성모델이 상식적인 공간의 개념이 해체되어 인간

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들게 표현되어 있다.

가상의 공간,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 등을 임의로 만들어내어 인물과 사물을 임의로 배치한 다든지, 지면 위에 또 다른 지면의 상황을 이중적으로 연출해 낸다든지 하는 고전적인 형식을 벗어난 화면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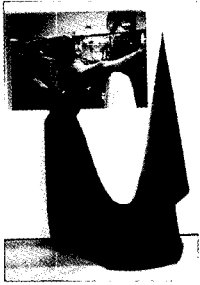


<그림14> Yohji Yamamoto의 의상을 입은 Kirsten Owen, 사진 Nick Knight, 1989.

배경과 인물의 부분적 색채, 칼라와 흑백의 혼용(페인트박스 기법), 명암의 콘트라스트 대비, 카메라의 특수 렌즈나 특수 필터의 사용, 이중 노출(Double Exposure) 등 전통적 색상 느낌의 파괴하여 해체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14>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의상을 입은 키스텐 오웬(Kirsten Owen)의 모습으로 의상과 배경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공간의 해체를 나타내고 있는 닉 나이트(Nick Knight)의 패션사진이다.

<옷을 입은 사진전>20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진 아상블라즈는 서술적 복합성을 드러낸다. 오브제로서 이런 기묘한 착상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표현 형태들(디자인, 퍼포먼스, 패션, 사진, 아상블라즈)의 가장자리에서 작용하며, 각각의 사진은 스포츠 센터에서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을 실물 크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작품은 낸 골드딘(Nan Goldin)의 작품이다. 그는 극단적인 남성성으로 대변되는 보디빌더인 고초(Gotscho)의 몸에 가장 여성스러운 옷을 디자이너들에게 주문해 차례로 입힌다. 매번 다른 패션 디자이너가 사진 촬영된 그의 신체의 크기에 따라 재단된 드레스를 사진에 직접 맞게 꿰매어 입혔고, 최종적 봉합은 묘한 어색감과 긴장을 불러 일으켰다. 드레스의 우아함과 여성성은 보디빌딩 하는 남자의 극단적으로 남성적인 신체와 강한 대비를 이루었다.

순수함과 환상 그리고 매력이 넘치며, 섹시한 단순성을 지녔음에도 드레스들은 사진의 표면에 기생하면서 사진의 물질적 온전성을 위태롭게



<그림15> “옷을 입은 사진집”, Nan Goldin, 2004.

할 수 있는 금기를 깨뜨리는 해체성을 보여주었다. 벽에 걸린 패션사진에 길게 바다으로 늘어뜨린 드레스들의 물리적 존재는 사진 촬영된 주체의 부재와 그를 둘러싼 무덤을 연상시키는 침묵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사진15>

이 작품은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에게 기괴한 게이의 모습, 즉 여장한 남자의 표정과 태도를 부여한다. <옷을 입은 사진들> 초상화의 작가인 낸 골드인은 렌즈를 고초의 몸에 가까이 맞추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시바크롬(Cibachrome) 위에 실물 크기로 뽑은 자신의 초상화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친밀감을 부여했다.

### 3. 장르의 해체

장르의 해체는 비주얼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고정 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나고 독특한 표현 테크닉으로 과장을 하거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몇 가지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거티브 이미지 표현형태는 불가사의한 표현, 전위적인 표현,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표현, 충격적인 이미지 등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를 주는 유형을 말한다.

‘Theatre of Fashion’ 전시회에서<sup>21)</sup> 사진작가들은 샤넬(Chanel),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장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세계를 재발견하고 있다. 보그(Vogue),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 마리 클레르(Marie Claire), 엘르(Elle)와 같은 패션잡지와 함께 작업하면서 패션모델과 의상뿐만 아니라 잡지를 위한 기획 사진, 조형예술가들이 만든 작품, 패션쇼에서 볼 수 있는 액세서리 등을 종합하여 실험적으로 창출해낸 현대 패션사진을 예술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 전시회에서 여러 장르의 결합을



<그림16> Sarah Moon for Issey Miyake,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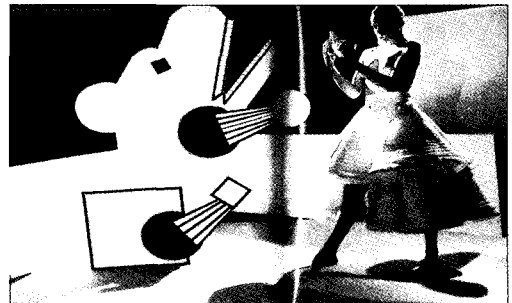
<그림17> i-D, 1993.9.

통해 패션을 하나로 보여주는 작업들이 진행되어 있었다.

장르의 해체는 <그림16>에서 보느바와 같이, 조형적 요소인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로고타입, 심벌마크 등이 회화적으로 재구성되어 상호 침투 혼합을 가져오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패션 사진은 주로 컴퓨터그래픽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명회화 작품의 일부나 전체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의 일부로 활용되어 이미지를 구성한다. 또한 <그림17>에서처럼, 사진과 캐릭터의 혼합, 러프 터치적 표현,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혼합 등 장르간 상호침투 혼합 현상을 이용해 기존 형식을 해체시켜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해준다.<sup>22)</sup>

이어지는 형식의 상호 텍스트성에 의하면 하나의 주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시리즈의 형태로 촬영한 패션사진들도 있다. 언뜻 보기에는 패션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며 하나의 사진을 보기보다는 시리즈 전체를 보아야 의미가 풍부해지는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그림18>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그림18> i-D, skirt by Yohji Yamamoto: Clear mask and silver lips, both by Naomi Filmer. 1999.3.

가 디자인한 스커트를 착용한 모델과 나오미 필머(Naomi Filmer)가 디자인한 마스크와 은빛 입술, 다양한 설치미술 등이 상호침투의 혼합 현상을 이용해 장르의 해체를 시도한 패션 사진이며, 요지 야마모토는 이러한 패션 사진의 이미지를 통해 디자이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 V. 결론

오늘날 패션과 패션 사진은 독특한 예술의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화려한 조명,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모델들, 우아한 율동, 유명 디자이너의 의상, 헤어 드레서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연출이 함께 만들어내는 앙상블은 그 무엇보다 멋진 종합 예술이다. 패션사진은 단순히 패션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션을 생각하는 도구가 되었다.

패션 사진들은 내용 속에 패션과 신체를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패션 사진에서는 아이콘 중심주의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징을 통해 이미지를 재현한다. 결국 패션사진은 재현된 아이콘적 형태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즉각적인 연결을 통해 의미론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데리다가 말한 궁극적인 차이와 관련된 더 많은 상이한 체계를 임의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환기시킨 것이다. 즉각적인 인식 내의 통합 과정이 지연되면서 패션사진은 더 많은 우연적인 것들과 겹치고 결과적으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며, 이것은 해체를 통한 '인식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로 패션 사진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고, 패션 사진에 사회적 변화 요인이 철저하게 반영되면서 색슈얼리티, 다큐멘터리적 사실주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누어 다양한 현대의 패션 사진의 경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현대 패션사진은 아방가르드적인 요소,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 해체주의적인 요소가 섞인 다양한 장르의 사진이 발견되

었고, 그 중 해체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패션 사진에 대해 고찰해보게 되었다.

해체주의는 불확정성을 지녔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전통적인 이분법적 논리의 부정,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화와 장르의 해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연관성을 가지므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분류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이를 토대로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성을 성의 해체, 시간·공간의 해체, 장르의 해체, 세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실증적 자료 제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사진은 성의 해체로 나타난다. 패션 사진은 의미가 없는 듯한 기호를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서술구조의 모호성으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성역할과 라이프 스타일을 해체시켜 매춘부나 게이, 레즈비언 등이 등장하는 사진, 전통적인 남성미와 패셔너블한 여성미의 의상을 접목시키거나 앤드리지너스적인 이미지의 패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패션사진은 시간·공간의 해체로 나타난다. 패션 사진에서의 시간·공간의 해체는 서로 상이한 공간에서 비합리적 이동을 보여주거나, 스토리 사이의 시간과 공간이 해체되어 합리적인 질서를 찾을 수 없어 인간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다.

셋째, 패션사진은 장르의 해체로 보여진다. 장르의 해체는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독특한 표현 테크닉으로 과장하거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패션 사진에 캐릭터의 혼합, 러프터치적 표현,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혼합 등 장르간 상호침투 혼합 현상을 이용해 기존 형식을 해체시켜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닫힌 세계에 대한 저항과 동시에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해체주의적 사고는 패션 사진의 통념을 깨뜨리는

창조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션 사진에서 해체주의적 사고는 절대 가치나 전통적인 조화라는 기준을 벗어나 기존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디자인 접근방법을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으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열린 개념의 미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p.373.
- 2) 김주현, 권미정, 이순자 (1999). 현대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578-596.
- 3) 김민수 (1994).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안그라픽스.
- 4)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양식으로 그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독자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하나가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것도 아닌 양식.
- 5) Foster, Hal., 윤호병 외 역 (1994). *반미학(The Anti-Aesthetic)*. 서울: 현대문화사, p.19.
- 6) 테리 이글턴, 김명환, 정남영, 장남수 공역 (2004). *문학이론 입문*. 서울: 창작과 비평사, p.164.
- 7) 이지윤 (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9.
- 8) 김주영 (1995).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 9) 유경선, 박재건 외 (1995). *사진용어사전* 서울: 미진사, p.327.
- 10) 황왕수 (1987). *사진백과사전* 서울: 집문당, p.318.
- 11) 백수향 (1993). 개념을 위한 패션사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11.
- 12) 정성근 (1995). *패션사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p.18.
- 13) Newhall, Beaumont, 정진국 역 (2003). *사진의 역사(The History of Photography)*. 서울: 열화당.
- 14) Jennifer Craik (1994).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p.96.
- 15) Jennifer Craik (1994). Op. cit., p.108.
- 16) Val Williams (1998). *Look at Me : Fashion Photography in Britain 1960 to the Present*. London: The British Council, p.104.
- 17) Michael Mack(ed.) (1996). *Surface:Contemporary Photographic Practice*. London: Booth-Clibbron, p.232.
- 18) Roland Barthes (1993). *The Fashion System*. New York: Hill and Wang, p.98.
- 19) Craig Owens (1985). The Discourse of Others : Feminism and Postmodernism, ed. Hal Foster(ed.) *Postmodern Culture*. London: Pluto press, pp.57-58.
- 20) 대림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전시는 한국의 1960년대 패션 사진을 비롯해, 최근의 다양한 경향을 드러내는 국내 사진작가 30명의 작품과 고초의 <옷을 입은 사진>으로 구성됐다.
- 21) 프랑스 국립현대예술기금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으로 프랭크 페렝, 데보라 튀르브빌, 사라 문, 프랑스와즈 위기에, 제라르 위페라 등 현재 패션 사진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16인의 패션사진작가들이 참여하였다.
- 22) 강명구 (1993).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pp.201-202.